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초급한국어교재의 생활문화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of the Life and Culture of the Primary Korean Textbook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겸임교수 최 배 영*
Dep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
Plural Professor : Choi, Bae-Young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life and culture contents of the primary Korean textbook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investigates ways to improve the textbook organization in future.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textbook must reflect the demand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s learners that need to adapt to Korean society. 2. The textbook needs to adopt a circulating disposition in organizing such life and culture contents that female marriage immigrants can obtain and utilize while living in diverse life environments 3. The textbook should also provide multi-cultural elements in order to help female marriage immigrants with the internalization of the complex identity between their home countries and Korea.

▲주요어(Key Words) : 여성 결혼이민자(female marriage immigrants), 초급한국어교재(primary Korean textbook), 생활문화(life and culture),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Ⅰ. 서 론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커지면서 대두된 세계화와 한류 문화의 열기 속에 국제결혼에 의한 여성 이민자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서혁, 2007). 2008년 7월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는 128천명에 이른다(보건복지가족부, 2008b). 2007년 인구동향 조사결과 혼인건수에 의거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총 29,140건 중 중국 14,526건, 베트남 6,611건, 일본 1,665건, 필리핀 1,531건의 순이다(통계청, 2008).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한국이 비록 낯선 땅이지만 고국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꿈꾸며 결혼과 함께 이주한다. 그러나 사전준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사, 육아, 가족 등과 관련된 짐(여성가족부, 2005:3)을 한꺼번에 떠안게 되고 더욱이 가정 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혼란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유가효 등(2008)도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뿌리를내리는 과정에서 언어 및 일상생활을 비롯한 문화적응 그리고 가족관계적응의 문제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새로운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갖게 된다(채옥희・홍달아기, 2006).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05년 12월 여성가족부는『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초급』을 발간하였다. 한국어교육에 활용이 되고 있는 이 교재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는 한국어 습득의 통로가 되어 왔으며, 생활문화의 이해를 위한 안내자의 역할도 수행해왔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재 연구가 한국어교육학계에서 활발히 진행(이민경, 2007)되어 끊임없는 수정을 거쳐 발전되는 현실에 비추어볼

* 주 저 자 : 최배영 (E-mail : kb9112@hanmail.net)

때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가 촉구된다. 특히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재는 단지 언어 숙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성으로서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능력 배양과 생활문화 이해에 대한 측면이 상호 통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을 갖고 있기에 시의적으로 가정학계의 검토를 요한다. 현재까지 타학문분야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교육내용이나 교재개발 연구(구지은, 2006; 김일란, 2007; 백미옥, 2007; 이민경, 2007; 이순애, 2007; 이영옥, 2007; 이언숙, 2008)를 시행한 바는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한국어교재의 내용에 대한 분석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어와 생활문화 교육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초급한국어교재에 나타난 생활문화의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교재구성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Ⅱ.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문화교육

1. 생활문화의 개념 및 분류

생활문화는 일상의 생활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부딪치게 되는 일상생활에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가 요구되는 문화요소이다(백미옥, 2007). 조항록(2008b: 284)은 일상 생활문화의 개념을 little C로 정의하고, 여기에는 사회구성원의 행위의 모든 것(언어적, 비언어적 행위), 신념, 가치관, 태도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구성원의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의 내용이 주가 된다.

이소영(2001)은 문화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일상 생활양식문화를 지적하였다. 이는 언어교육의 목표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고, 의사소통 능력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히 의사소통하고 행동할 수 있는 문화적 능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결국 학습자들이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행동이나 생활양식에 관련된 문화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경연(2007) 역시 생활문화가 실제 의사소통 능력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주변 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문화교육의 범주는 일상 생활양식과 관련된 생활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같은 생활문화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문화를 영위하는 사회구성원과 환경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활문화 내용의 영역을 설정하고자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분류를 다음의 <표 1>로 정리하였다. 백미옥(2007)은 생활문화를 언어적 행동양식, 일상 생활양식, 비언어적 행동양식으로 구분하였다. 이순애(2007)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을 의사소통문화, 생활문화, 정신문화, 사회적 성취문화, 예술문화로 분류하고, 이 중 생활문화는 의식주문화, 일상 생활양식, 생활예절, 민속 문화로 세분화하였다. 이언숙(2008)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국에서 살아나가기 위한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 가장 크므로 한국어라는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교육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문화요소를 언어문화, 생활문화, 정신문화, 정보문화, 다문화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생활문화는 의복문화, 주거문화, 식생활문화, 생활예절, 교통/통신, 법/제도, 놀이/여가, 교육, 경제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분류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생활문화의 내용이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문화적 산물(이길표・주영애, 1999: 13)로 국한되어 나열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은 생활문화를 영위하는 주체로서의 개인과 가족 그리고 그들이 속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의 개념에 그를 영위하는 주체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함축하여 가족생태학적 관점에서 생활문화의 내용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생태체계는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는 유기체와 환경의 종합체이므로 이를 통해 환경적 상호관련성을 고찰할 수 있는 단위인 개인(여성 결혼이민자)과 가족을 그들의 생활환경 내에서 파악할 수 있다.

2. 학습자로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신상록(2008: 321)에 의하면 2007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수는 경기도 30.0%, 서울 28.5%, 인천 6.0%, 경남 5.8%, 경북 4.6%, 충남 4.1%, 충북 2.8%로 64.5%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 거주 년수는 4년 이상 24.3%, 1년 미만 24.2%, 1년 이상 12.9%, 2년 이상 8.7%, 3년 이상 5.7%, 무응답 4.7%였다(이순애,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연령은 20대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3.9%, 40대 12.8%, 20세 이하 6.3%로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인 남편과의 연령차는 평균 11.5세로 전반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는 어리고 그에 비해 한국인 남편은 나이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 중 40.0%가 재혼이었으며, 이중 90.0%가 이혼 경험이 있는 점과도 연관되었다(유가효 등, 2008).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다(설동훈 등, 2005: 58). 설동훈 등(2006)의 연구에 나타난 국제결혼가정의 가구소득은 한국 전체 가구소득의 59.0%의 수준이었다. 또한 한국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표 1> 생활문화의 분류

연구자(년도)	백미옥(2007)	이순애(2007)	이언숙(2008)
생활 문화의 분류	· 언어적 행동양식 (호칭, 존대법, 담화나 화용적 측면, 한국인의 신념, 태도, 사고방식 등) · 일상 생활양식 (의복문화, 음식문화, 주거문화, 계절/날씨, 공공시설/기관/서비스, 지리/지역정보, 교통/통신, 주말/여가/취미, 화폐, 행사/기념일, 일상 예절, 표지정보, 교육, 임신/출산 등) · 비언어적 행동양식 (시선, 몸짓, 자세, 접촉 등)	· 의식주문화 (의복, 음식, 조리도구, 주거환경 등) · 일상 생활양식 (가정생활, 경제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취미생활, 교통수단 이용, 공공기관 이용 등) · 생활예절 (언어예절, 인사예절, 식사예절, 생활예절 등) · 민속 문화 (명절, 절기, 세시풍속, 결혼, 생일, 장례, 제사, 고사, 민간요법, 풍수지리 등)	· 의복문화 (한복, 현재 한국의 옷과 신발 등) · 주거문화 (전/월세, 좌식문화, 실발 벗기, 온돌 등) · 식생활문화 (한국의 음식, 술/차 문화, 상차림, 김장 등) · 생활예절 (인사법, 경로석, 식사예절, 호칭 부르기 등) · 교통/통신 (버스 노선도, 지하철, 고속버스 등) · 법/제도 (체류, 결혼과 이혼문제, 공공기관 이용 등) · 놀이/여가 (놀이문화, 여가문화 등) · 교육 (입시제도, 사제지간, 태교, 가정교육 등) · 경제 (화폐, 은행, 신용카드, 직업 등)

실시한 결과 11점 중 3.8점으로 느끼고 있어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은 한국인 가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지은(2006)은 부산·경남지역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의 한국어 학습 경험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학습 경험이 없는 여성의 비율이 6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개월 16.0%, 1개월 13.0%, 6개월 10.0%로 나타나 비교적 많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한국생활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33.0%), 남편을 비롯하여 시댁의 가족들과 대화하기 위해(31.0%), 자녀와 대화하기 위해(13.0%), 자녀교육을 위해(12.0%), 교육문제 상담을 위해(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수준의 목표를 분석한 이경연(2007)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한국인과 똑같은 수준 정도(57.8%),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26.7%),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정도(13.3%)로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과 같은 수준에서의 한국어 사용을 희망한다는 것은 곧 한국생활을 위한 주된 적응 방안으로서의 인식을 의미한다.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생활의 적응을 위해 한국어를 학습한다는 견해에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다.

이상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20~30대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모국에서 한국어 습득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에게 있어 한국어 학습은 생활에 적응하고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20~30대의 젊은 결혼이민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생활에의 적응과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점, 결혼 후 곧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상호 연관지어볼 때 이들을 위해서는 일상의 의식주생활양식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자신과 남편, 시부모, 친척들과의 관계, 그리고 임신 및 출산과 육아방식,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문제에 관련된 생활문화 내용의 필요성이 일차적으로 강조된다고 하겠다.

2) 학습 환경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b)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생활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80여개에 이르며,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기관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기관들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족들의 지지와 협조가 따르지 못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집합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영옥(2007)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자녀양육문제, 시간 부족, 가사부담, 경제적 어려움, 가족들의 반대 등으로 나타났다. 즉 육아와 가사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남편과 시부모의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속적인 교육 참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도시에 비해 농촌은 교육의 혜택을 쉽게 받지 못하는 제약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교육 외에 온라인교육과 방송교육이 실시(보건복지가족부, 2008b)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거나 개인 혹은 가정환경의 여건 상 학습이 어려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방문교육과 TV 혹은 인터넷을 통한 학습여건의 구축을 확대,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이때 사용되는 한국어교재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가정에서 혼자 혹은 방문교사나 매체의 도움으로 학습이 가능해야 된다는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문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도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이 곧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에 핵심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최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국제결혼배우자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학습동기

한국어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제2언어이다.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동기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된다. 박영순(1989)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정숙(1992)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해외교포가 진정한 한국의 구성원이 되는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기능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문화, 역사, 사회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한국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로 볼 때 한국어교육 대상이 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학습 동기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경연(2007)의 연구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생활 가운데 한국문화의 이해를 매우 중요하다(48.9%), 중요하다(44.5%), 별로 중요하지 않다(6.6%)의 순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93.4%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인식하는 결과는 문화교육의 부재로 나타나는 문화적 갈등을 적시에 해소하지 못하거나 문화이해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한국인 되기(39.2%), 사고방식의 이해(33.3%), 생활 적응(25.5%)의 순으로 응답을 보여 이들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그리고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면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문화를 배우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한국문화 이해의 수준은 생활 적응(37.8%), 전통문화의 이해(31.1%), 사고방식의 이해(17.8%), 사회전반의 이해(13.3%)의 순을 나타내 생활에 대한 적응과 전통문화의 이해 증진 목표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기서 전통문화 이해에 대한 목표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즉 한국의 주부로서 정체감을 가지기 위한 견해로도 유추된다.

이상을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학습동기를 갖고 있다. 이들은 한국생활에의 적응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어와 생활문화 를 배우는 것이다. 이는 한 가정의 아내, 며느리, 어머니, 주부이자 지역사회의 학부모, 주민, 이웃으로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과 생활문화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문화교육이 요구됨을 암시한다.

4) 여성가족부 발간 한국어교재의 활용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a)의 보고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필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에서는 여성가족부 발간 교재(첫걸음, 초급, 중급)가 반별 수준에 맞게 활용되면서 초등학교 교재 중 일부분을 발췌하거나 대학교 어학당, 한국어전문교육기관 등에서 개발된 한국어교재가 함께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수준별로 2개월간 수업이 진행되며, 1주일에 2회 정도 1개 반에 10~15명이 수업을 받는다. 2008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들의 집합교육을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 5,300여명이 한국어교육을 받았다(보건복지가족부, 2008b). 또한 방문교육사업에서 시행되는 한국어교육서비스에서도 여성가족부 발간 한국어교재가 활용되고 있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b), 2008년에는 5,760가정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1주일에 1~2회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b).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여성가족부 발간 한국어교재가 활용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의 한국어교육기관을 조사한 김일란(2007)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 기관에서 사용되는 한국어교재는 주로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초급』(초급반용)과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발행한 교재들(중급・고급반용)이었다. 한국어수업은 1주일에 2~3번, 1일 2시간 정도로 진행되며, 1개 반의 인원은 평균적으로 10~15명이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여성가족부 발간 한국어교재는 결혼이민자가족센터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에서 비중있게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8c)는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안내를 통해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으로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을 밝혔다. 그 주된 내용은 문화를 이해하고 생활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계별(5단계: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한국어교육 실시에 있다. 이처럼 국가적인 차원의 한국어교육 체계화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한국어교재의 내용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한국어와 생활문화

교육의 방향 모색에 일환이 될 것이다.

3. 생활문화교육의 현황

1) 기관 내 생활문화교육 내용

김양희 등(2008)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국・공립기관, 종합사회복지관의 결혼이민자가족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활문화교육에서는 식생활 관련 프로그램(예: 요리교실, 한국음식, 한국 전통음식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예절 관련 교육(예: 예절교실, 예절교육 등)이 일부 기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생활문화에 관한 정보 제공,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교육내용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생활문화체험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지나치게 식문화에만 치중되어 있어 한국의 다른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편성, 운영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백미옥(2007)은 한국어교육을 통한 문화교육은 특정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문화 항목을 교육하는 것 이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각 반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교사가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문화교육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기관에서 교재의 문화내용과 병행할 수 있는 표준화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밝혔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생활문화교육 상의 몇 가지 제약점을 간추려보면 첫째, 한국어교육과는 별도로 생활문화교육이 실시되는 경우 음식, 예절과 같은 일부 단편적 내용에 치중되고 있어 한국어교육과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면서 생활문화교육 내용의 다양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어교사가 교재를 기반으로 생활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재에 제시된 내용에만 한정되기 쉽고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교사의 역량과 준비에만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 같은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전공자와 생활문화전공자가 함께 한국어교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토대를 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학습을 희망하는 생활문화 내용에 대한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학습자 활동중심의 교육을 지향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생활문화교육의 학습경험

이경연(2007)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입국 전 한국문화교육에 대한 학습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73.3%를 차지했다. 입국 전 학습한 한국문화교육 내용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 대해서는 어른 공경, 식사예절, 인사예절, 생활풍습과 관련한 답변이 많았다.

이순애(2007)는 서울·경기 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문화의 내용이 충분한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다(39.3%), 충분하다(25.8%), 부족하다(22.5%), 매우 부족하다(4.5%)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보통이라는 응답을 포함하면 많은 여성들이 충분치 못함을 느끼고 있었다.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내용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이유를 질문한 결과에 있어서는 문화 내용이 너무 적다(30.2%), 그림 등 보조 자료가 부족하다(26.4%), 문화 내용이 너무 어렵다(18.9%), 설명이 부족하다(15.1)%, 문화 관련 주제 선정이 적절치 않다(7.5%)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한국의 생활문화에 대해 사전 학습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한국어교재를 통해 생활문화 관련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여성 결혼이민자들로부터 나타나는 한국어교재 내 생활문화 내용에 대한 견해를 감안하여 교재에서의 문화 관련 내용의 비중 확대, 삽화나 사진 등의 시각자료 제시, 그들의 학습 수준에 맞는 내용 선별, 이해하기 쉬운 설명 등을 포함하는 교재의 보완 및 개선이 요청됨을 알 수 있다.

4. 생활문화교육에 대한 요구

1) 교육내용의 요구

한국어 초급단계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요구하는 생활문화교육 혹은 문화교육의 내용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요구도 분석을 순위별로 재정리하였다(<표 2> 참조). 이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한국어 초급단계에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생활문화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첫째, 언어예절 혹은 언어문화에 관련하여 대상에 따른 언어 사용, 상황별(사과, 감사, 거절 등) 적절한 언어 표현에 대한 교육요구가 있다. 이는 미숙한 한국어 수준에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생활 가운데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을 반영하는 셈이다. 둘째, 생활예절문화와 관련하여 웃어른에 대한 예절, 어른 앞에서의 자세예절, 초대 및 방문예절, 인사예절, 식사예절에 관한 교육요구가 있다. 앞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입국 전 학습한 문화교육의 일부에 예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한 요구가 높은 순위를 나타내는 것은 그 내용이 단기적인 교육으로는 습득되기 어려운 까닭으로 유추된다. 셋째, 한국의 음식 이름과 맛, 음식 만들기와 상차림 등 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알아야 할 음식문화에 관한 교육요구가 있다. 넷째, 임신 및 출산과 더불어 육아(놀이, 자장가, 노래 등)와 자녀교육 등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요구가 있으며, 이 부분의 요구는 한국거주 년수의 증가에 따라 우선순위 상에 다소의 변화를 보인다. 다섯째, 가족의례(돌, 생일, 생신, 회갑 등)와 명절풍습(놀이, 음식) 등 모국과는 다른 생활문화에 대한 교육요구가 있다. 여섯째, 사회 내의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택시, 버스카드, 승차권 등) 및 가게와 은행(통장과

현금카드 만들기, 공과금 납부) 등의 이용방안에 대한 교육요구가 있다. 일곱째, 전세, 월세, 관리비, 보증금, 단독주택 등 주거문화에 대한 교육요구가 있다. 여덟째, 병원, 약국, 관공서, 우체국, 지역 도서관, 미용실, 영화관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교육과 아홉째, 계절, 날씨, 지리 등 자연환경에 관한 교육에도 요구가 있다. 이상을 간추리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가족 환경을 둘러싼 인접 환경(사회적,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광역 환경(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자연 및 구조적 환경)

<표 2> 한국어 초급단계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문화교육에 대한 요구

순위	백미옥(2007)	이경연(2007)			이언숙(2008)
		한국거주 1년 이내	한국거주 1~2년 이내	한국거주 2~5년 이내	
1	어른 앞에서 피할 자세/어른 앞에서 앉는 자세 반말 표현(자녀에게)	언어문화	자녀교육	의식주	한국어의 특징
2	웃어른에 대한 예절 증상에 따른 병원 이용	음식 만들기	의식주	명절, 풍습	생활예절
3	사과, 감사, 거절의 표현	명절, 풍습	언어문화	음식 만들기	식생활문화
4	가족 생일, 생신, 돌, 회갑의 의미 긴급 전화번호 초대 및 방문예절 교통수단 및 이용방법	임신, 출산	한국의 역사	육아정보	법과 제도
5	은행 이용 방법 한국의 공휴일 및 기념일 한국의 상차림 한국 음식의 이름과 맛	자녀교육	음식 만들기	자녀교육	교육
6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물건	의식주	한국사회 이해	한국의 역사	교통, 통신
7	한국인의 몸짓 언어 아기와 하는 놀이 및 노래	예절문화	전통예술문화	예절문화	관용표현
8	한국명절의 전통놀이와 음식 동사무소, 구청, 출입국관리소 이용	한국사회 이해	육아정보	긴급전화	경제
9	주거문화(전월세, 관리비, 보증금, 단독주택 등) 임산부가 피해야 할 음식/임산부에게 좋은 음식 특별한 날에 하는 선물 한국 화폐, 물건 가격 읽기	육아정보	임신, 출산	한국사회 이해	관습
10	지역 보건소 이용방법 인사예절	한국의 역사	명절, 풍습	언어문화	국가 상징
11	한국인의 나이세는 법 전화로 음식 주문하는 법	취업 정보	예절문화	공공시설 이용	주거문화
12	한국의 계절과 날씨 표현 약국 이용 방법	여가생활	공공시설 이용	법률정보	전통문화
13	우체국 이용 임산부 편의시설 식사예절	전통예술문화	법률정보	취업정보	대중매체
14	한국인의 취미 및 여가활동 주소 표기법 지하철 노선표 읽는 법	한국인의 가치관	취업정보	한국인의 가치관	다문화
15	지역 도서관 이용 방법	긴급전화	긴급전화	여가생활	한국 역사
16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 한복을 입는 때와 방법 출산 준비물	한국의 지리	대중문화	행정기관 이용	지리정보
17	공중전화, 국제전화 거는 법 '우리'의 뜻	대중문화	여가생활	한국의 지리	기후, 날씨
18	세탁 시 주의 사항 표현	법률정보	한국인의 가치관	전통예술문화	놀이, 여가
19	미용실, 목욕시설 이용	공공시설 이용	한국의 지리	대중문화	비언어적 행위
20	영화표 예매와 영화관 이용	행정기관 이용	행정기관 이용	임신, 출산	의복문화
21	·	·	·		종교, 철학

내의 생활문화 내용에까지 교육에 대한 요구를 보이고 있다.

2) 교육방안의 요구

이순애(2007)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교재 내에서 한국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배우면 좋은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교재에서 문화코너를 따로 정하지 않고 한국어와 함께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좋겠다(28.1%),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배우는 것이 좋겠다(22.5%), 교재에서 문화코너를 따로 정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해주면 좋겠다(19.1%), 교재에서 문화코너를 따로 정해 설명식으로 적어주면 좋겠다(11.2%), 교재와 상관없이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배우는 것이 좋겠다(10.1%)의 순으로 응답을 보여 80.9%의 여성들이 한국어교재와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경연(2007)의 연구에서도 초급수준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교재를 통해 한국문화를 배우게 될 때 가장 좋은 방안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3.3%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모국어로 설명(21.7%), 실제 체험(20.0%), 사진과 그림 제시(15.0%)로 응답이 나타났다.

백미옥(2007)의 연구에서는 초급한국어교재에서 생활문화를 제시할 때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설명 위주의 텍스트(32.7%), 교재의 생활문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청각 자료(28.9%), 삽화(19.2%), 사진(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한국어교재 내에 포함된 생활문화의 내용과 제시된 자료 유형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를 통해 향후 개선해야 할 점들을 확인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주지하는 측면이다.

Ⅲ. 연구방법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초급한국어교재의 생활문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해 분석대상, 분석유목, 분석단위와 집계체계를 결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초급단계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활용되고 있는『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초급』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교재는 <표 3>에서와 같이 총 24개과로 되어 있다. 여성가족부(2005: 6)에 따르면 교재의 구성 원리는 한국의 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과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상황, 사회적인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 역시 함께 다루었다. 또한 가족의 명칭 및 호칭에서부터 조리 도구의 이름 그리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어휘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일원으로서, 주부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휘들을 다루면서 삽화 혹은 사진을 제시하였다. 한편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교육 기관에서 혹은 가정방문교사로부터 한국어를 배우는 데 들일 수 있는 시간이 1주일에 1~2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에 머문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화 지문의 길이 및 한 과에 해당하는 문법 항목의 수를 최소화하였다(여성가족부, 2005: 6). 전체적으로 각 과는 대화문으로 시작하여 어휘, 문법, 기능 연습의 순으로 되어 있다.

2. 분석유목

한국어교재의 생활문화 내용을 영역별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유목으로는 Deacon과 Firebaugh(1988: 29-33)가 제시한 가족생태체계와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생활문화의 분류(<표 1> 참조)를 참조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다른 한국어학습자들과는 달리 가족이라는 환경에 놓이면

<표 3>『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초급』의 목차

과	제 목	과	제 목
1	안녕하세요?	13	읍내까지 얼마나 걸려요?
2	어느 사람 사람이에요?	14	신설동역에 어떻게 가요?
3	이 분은 제 어머니예요.	15	배가 아파요.
4	얼마예요?	16	찬 것을 먹지 마세요.
5	사과 세 개 주세요.	17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6	지금 몇 시예요?	18	저는 칼국수를 먹을게요.
7	생일이 언제예요?	19	주말에 뭐 할 거예요?
8	한국어 공부를 해요.	20	베트남으로 보내 주세요.
9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해요.	21	동대문 시장에 가봤어요?
10	책상 위에 있어요.	22	모자를 쓰고 있어요.
11	검은색 바지를 사고 싶어요.	23	추석에 어떤 음식을 할까요?
12	여보세요?	24	선생님 말씀 잘 들어.

<표 4>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환경에 따른 생활문화의 내용

생활환경		생활문화의 내용
가족 환경		가족/친척
인접 환경	사회적 환경	친구/이웃, 일반타인
	물리적 환경	복식, 음식, 주거, 위치, 용품, 기기
광역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예절, 의례, 출산/육아, 교육, 행사, 명절, 여가
	정치적 환경	법, 제도, 행정기관
	경제적 환경	단위, 정도, 화폐, 가게/시장, 일/취업
	기술적 환경	교통, 통신
	자연 및 구조적 환경	계절/날씨, 시간/때, 식물, 지역, 도로, 건축물

서 그를 둘러싼 인접·광역 환경 내의 생활문화를 영위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생활환경을 가족 환경, 인접 환경, 광역 환경으로 구분하고 각 생활환경별로 부합되는 생활문화의 내용을 다음의 <표 4>와 같이 설정하였다.

이중 가족 환경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의 관계문화를 포함한다. 인접 환경은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으로 구분되는데 사회적 환경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주변 친구/이웃 간 그리고 일반타인과의 관계를, 물리적 환경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복식, 음식, 주거, 위치, 용품, 기기 등의 문화내용을 포함한다. 광역 환경은 사회문화적 환경, 정치적 환경, 기술적 환경, 경제적 환경, 자연 및 구조적 환경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사회문화적 환경은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기대를 담고 있는 예절, 의례, 출산/육아, 교육, 행사, 명절, 여가 등의 문화를, 정치적 환경은 법과 제도를 비롯하여 공적 행정기관의 영향과 관계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경제적 환경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환경으로서 단위, 정도, 화폐, 가게/시장, 일/취업 등의 문화를, 기술적 환경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생활에 반영되는 측면으로서 교통과 통신의 문화를, 자연 및 구조적 환경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계절/날씨, 시간/때, 식물, 나라/도시, 지역, 도로, 건축물 등 자연적·인공 구조적 환경의 문화를 포함한다.

3. 분석단위 및 집계체계

내용분석을 위해 사용된 분석단위는 단어이다. 내용분석 시 교재의 24개과에서 생활문화 관련 명칭의 단어(보통명사, 고유명사, 1인칭대명사)가 제시되어 있거나 삽화·사진에 포함된 단어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삼아 분석유목에 포함시켰다. 이때 단어 분석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각 명칭의 확인은 국립국어원(2008) 홈페이지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거하였다. 집계체계는 각 유목별로 존재하는 단어수이며, 집계처리는 Excel을 이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분석대상 교재를 연구자와 전공 분야의 박사 1명, 석사 1명 모두 3명이 분석한 후 분석자들 간의 상호 일치정도를 살펴보았다. 종합적 신뢰도 공식에 따라 신뢰도를 구한 결과 3인 간의 최종적인 일치정도는 .92로 산출되었다. 분석은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3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Ⅳ. 초급한국어교재의 생활문화 내용분석

1. 초급한국어교재의 분석

1) 생활환경별 생활문화의 내용

여성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생활환경을 가족 환경, 인접 환경, 광역 환경으로 구분한 후 생활환경별로 초급한국어교재 내 포함되어 있는 생활문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5>를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초급한국어교재의 생활문화 내용은 총 858개 단어로 분석되었다. 이들 단어들을 생활환경별로 구분한 결과 가족 환경 50개(5.9%), 인접 환경 379개(44.1%), 광역 환경 429개(50.0%)를 나타냈다. 생활환경의 하위영역별로는 물리적 환경에 관련된 단어가 323개(3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연 및 구조적 환경 178개(20.8%), 경제적 환경 112개(13.1%), 사회문화적 환경 91개(10.6%), 사회적 환경 56개(6.5%), 가족 환경 50개(5.9%), 기술적 환경 39개(4.5%), 정치적 환경 9개(1.0%)의 순이었다. 한편 생활문화의 내용으로 제시된 단어의 수는 음식 142개(16.6%), 용품 83개(9.7%), 시간/때 60개(7.0%), 복식 57개(6.6%), 건축물 57개(6.6%), 가족/친척 50개(5.9%), 일/취업 45개(5.3%), 여가 30개(3.5%), 친구/이웃 29개(3.4%), 일반타인 27개(3.1%), 나라/도시 27개(3.1%), 교육 26개(3.0%), 교통 20개(2.3%), 가게/시장 19개(2.2%), 통신 19개(2.2%), 단위 18개(2.1%), 정도 17개(2.0%), 위치 15개(1.7%), 지역 14개(1.6%), 주거 13개(1.5%), 기기 13개(1.5%), 화폐 13개(1.5%), 계절/날씨 13개(1.5%), 예절 10개(1.2%), 의례 10개(1.2%), 행사 9개(1.1%), 명절 6개(0.7%), 행정기관 6개(0.7%), 도로 4개(0.5%), 제도 3개(0.3%), 식물 3개(0.3%)였다.

<표 5> 생활환경별 생활문화의 내용(가다나순)*

N(%)

생활환경			생활문화 내용	소계	계	합계
가족 환경			가족(3). 김영호(1). 나(3). 남동생(1). 남편(10). 누나(1). 도련님(1). 동서(1). 란(24). 매부(1). 민재(2). 민지(1). 부모(1). 부부(1). 서방님(1). 손아래(1). 손위(1). 시누이(1). 시댁(2). 시동생(1). 시아버지(2). 시아주버니(1). 시어머니(2). 시할머니(1). 시할아버지(1). 아가씨(1). 아기(2). 아빠(1). 아이(4). 아버님(3). 아버지(1). 아주버님(1). 어머니(2). 어머님(4). 언니(1). 엄마(1). 여동생(1). 오빠(1). 우리(4). 이모(1). 자기(1). 자녀(1). 저(9). 친정(1). 할아버님(1). 할아버지(1). 할머니(2). 할머님(1). 형(1). 형님(1).	50 (5.9)	50 (5.9)	50 (5.9)
인접 환경	사회적 환경	친구/이웃	가오리(4). 나타샤(3). 라미(3). 리사(6). 마야(1). 민정(1). 베로니카(1). 선영(1). 순이(1). 수잔(1). 씨(10). 안나(1). 에블린(6). 엘레나(4). 왕리(6). 윤실(1). 재희(1). 자넷(1). 쟈미(2). 지얏(3). 철이(1). 취친(9). 취친의 남편(1). 친구(8). 친구의 남편(1). 친친(2). 티안(1). 하나코(2). 화(1).	29 (3.4)	56 (6.5)	379 (44.1)
		일반타인	간호사(1). 경찰(1). 김철수(1). 교장(1). 남자(1). 노인(1). 단체(1). 당번(1). 대상(1). 미아(1). 부인(1). 분(3). 사람(10). 상대방(1). 선생님(4). 아저씨(1). 아주머니(3). 어린이(1). 여자(2). 원장(1). 의사(1). 이동수(2). 점원(1). 종업원(1). 직원(1). 학부모(1). 한준원(1).	27 (3.1)		
	물리적 환경	복 식	겨울옷(1). 교복(1). 구두(6). 귀걸이(1). 내복(1). 넥타이(1). 다림질(1). 드라이(1). 러닝셔츠(1). 모자(1). 목걸이(1). 목도리(1). 바지(4). 반바지(1). 반지(1). 벨트(1). 복장(1). 봄옷(1). 브래지어(1). 블라우스(1). 빨래(3). 상의(1). 샌들(1). 세탁(1). 속옷(1). 손세탁(1). 손수건(1). 수영복(1). 스웨터(1). 스타킹(1). 슬리퍼(1). 시계(1). 신발(1). 옷(6). 운동화(2). 안경(4). 액세서리(1). 양말(2). 와이셔츠(1). 외투(1). 작업복(1). 잠바(1). 잠옷(1). 장갑(1). 장화(1). 점퍼(1). 정장(1). 조끼(1). 청바지(1). 치마(3). 코트(3). 티셔츠(1). 팬티(1). 표백(1). 하의(1). 한복(2). 허리띠(1).	57 (6.6)	323 (37.6)	
		음 식	간식(1). 간장(1). 갈비(1). 갈비탕(1). 갈치(1). 감자(1). 게(1). 계란(3). 계란찜(1). 고구마(1). 고기(1). 고등어(2). 고추장(3). 고춧가루(1). 과일(4). 과자(1). 구이(1). 국(3). 군만두(1). 귤(2). 급식(1). 김(2). 김밥(2). 김치(3). 김치찌개(1). 깨(1). 깨소금(2). 나물(2). 냉면(1). 녹차(1). 달걀(1). 당근(1). 닭(1). 닭갈비(1). 돈가스(1). 된장(1). 된장국(2). 된장찌개(2). 돼지고기(2). 두부(1). 딸기(3). 떡(1). 떡국(1). 떡볶이(2). 라면(1). 마늘(1). 맥주(1). 무(1). 물(4). 멸치(1). 미역국(1). 밀가루(1). 바나나(2). 반찬(1). 밤(1). 밥(10). 배(2). 배추(1). 볶음(1). 부럼(1). 부침개(1). 불고기(2). 비빔밥(1). 빵(5). 북어국(1). 분유(1). 불고기(2). 사과(5). 사이다(1). 삼겹살(1). 삼계탕(2). 새우(1). 샌드위치(1). 생선(4). 설렁탕(1). 설탕(1). 소고기(3). 소금(2). 소주(1). 송편(1). 수박(3). 수정과(2). 수제비(1). 순두부찌개(1). 순대(2). 술(1). 시금치나물(1). 식사(1). 식용유(1). 식초(1). 식혜(2). 쌀(1). 아이스크림(1). 아침밥(1). 야채(2). 약(1). 양념(1). 양파(1). 어묵(1). 오곡밥(1). 오이(1), 오징어(1). 요리(3). 우유(4). 유자차(1). 육개장(1). 음료수(1). 음식(5). 자장면(1). 저녁밥(1). 전(1). 점심밥(1). 조개(1). 조림(1). 족발(1). 주스(2). 진지(1). 짬뽕(1). 찌개(1). 차(2). 참기름(2). 청국장찌개(1). 치킨(1). 칼국수(1). 커피(3). 콜라(2). 콩나물(2). 콩나물국(1). 탕수육(1). 통닭(1). 튀김(1). 파(1). 패스트푸드(1). 포도(2). 프라이(2). 피자(1). 한과(1). 한약재(1). 햄버거(1). 호박(1). 화전(1). 후추(1).	142 (16.6)		
		주 거	거실(1). 건넌방(1). 대문(1). 댁(1). 문(1). 방(2). 부엌(2). 안방(1). 이웃집(1). 집(8). 청소(4). 현관(1). 화장실(1).	13 (1.5)		
		위 치	뒤(2). 맞은편(1). 밖(1). 방향(1). 사이(2). 속(1). 아래(1). 안(2). 앞(1). 옆(2). 왼쪽(2). 오른쪽(2). 위(2). 위치(1). 칸(1).	15 (1.7)		
		용 품	가방(4). 가위(1). 것(7). 고무장갑(2). 공(1). 공책(1). 국그릇(1). 국자(1). 그릇(1). 꽃병(1). 냄비(1). 달력(1). 담배(1). 도마(1). 도시락(1). 뒤집개(1). 린스(1). 메뉴(1). 물감(1). 물건(1). 밥그릇(1). 밥상(1). 밸브(1). 베개(1). 변기(1). 붓(1). 비누(1). 사물(3). 사진(3). 샴푸(1). 상(1). 상품(1). 색연필(1). 생리대(1). 서랍(1). 세제(1). 소설책(1). 소유(1). 소파(1). 소품(1). 숟가락(1). 스케치북(1). 식탁(1). 신문(3). 실내화(1). 안내표(1). 액자(1). 양푼(1). 연필(6). 영수증(1). 옷장(1). 우산(1). 의자(1). 이불(2). 일과표(1). 자(1). 재료(1). 접시(1). 젓가락(1). 종이(1). 주걱(3). 주전자(1). 준비물(1). 지우개(1). 책(10). 책가방(1). 책상(1). 책장(2). 치약(1). 침대(1). 칫솔(1). 칼(1). 컵(2). 크레파스(1). 편성표(1). 표백제(1). 풀(1). 프라이팬(1). 필통(1). 학용품(1). 행주(1). 화장대(1). 휴지(1).	83 (9.7)		
		기 기	가스레인지(2). 냉장고(4). 라디오(4). 리모컨(1). 세탁기(2). 전기밥솥(1). 전화(5). 전화기(2). 청소기(1). 카메라(1). 컴퓨터(4). 텔레비전(5). 휴대폰(3).	13 (1.5)		
광역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예절	감사(4). 말씀(2). 미안(2). 성함(1). 세배(1). 실례(1). 안녕(5). 예의(1). 인사말(1). 축하(2).	10 (1.2)	91 (10.6)	429 (50.0)
		의례	결혼(2). 결혼식(2). 돌잔치(1). 생신(1). 생일(2). 성묘(1). 제사(1). 차례(1). 칠순(1). 환갑(1).	10 (1.2)		
		출산/육아	·	0 (0.0)		

<표 5> 계속

생활환경			생활문화 내용	소계	계	합계
광역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교육	가정통신문(1). 과학(1). 공부(4). 교육(1). 국어(1). 도덕(1). 미술(1). 바른 생활(1). 반(1). 반말(1). 본교(1). 사회(1). 수업(1). 수학(1). 수학여행(1). 숙제(2). 슬기로운 생활(1). 시험(1). 실과(1). 영어(1). 음악(1). 즐거운 생활(1). 체육(1). 학년(1). 한국말(1). 한국어(7).	26 (3.0)	91 (10.6)	429 (50.0)
		행사	경기(1). 운동회(2). 입학식(2). 졸업식(1). 집들이(1). 축제(1). 파티(1). 프로그램(1). 퍼레이드(1)	9 (1.1)		
		명절	단오(1). 대보름(1). 명절(1). 설(1). 설날(1). 추석(1).	6 (0.7)		
		여가	강강수월래(1). 게임(1). 그네뛰기(1). 그림(1). 글(1). 노래(2). 널뛰기(1). 놀이(1). 놀이기구(1). 달맞이(1). 등산(1). 뜨개질(1). 무용(1). 배드민턴(1). 소풍(5). 수영(4). 십자수(1). 에어로빅(1). 여행(3). 연날리기(1). 영화(5). 운동(2). 윷놀이(1). 음악(3). 이야기(2). 잠(3). 쥐불놀이(1). 춤(2). 취미(1). 컴퓨터게임(2).	30 (3.5)		
	정치적 환경	법	·	0 (0.0)	9 (1.0)	
		제도	복지(1). 비자(1). 여권(1).	3 (0.3)		
		행정기관	교육부(1). 군청(2). 동사무소(1). 면사무소(1). 시청(1). 출입국관리사무소(2).	6 (0.7)		
	경제적 환경	단위	개(2) 개월(1). 권(1). 근(1). 단위(1). 대(1). 마리(1). 명(1). 번(2). 벌(1). 병(1). 살(1). 송이(1). 원(2). 잔(2). 장(1). 켤레(1). 통(1).	18 (2.1)	112 (13.1)	
		정도	간격(1). 거리(3). 기준(1). 나이(1). 냄새(1). 맛(2). 반(1). 번호(2). 색(2). 셈(1). 수량(1). 숫자(2). 얼마(2). 연세(1). 이상(1). 정도(2). 회(1).	17 (2.0)		
		화폐	경비(1). 금액(1). 기차표(1). 단가(1). 승차권(1). 예산(1). 입금(1). 저금(1). 출금(1). 카드(3). 표(2). 합계(1). 현금(1).	13 (1.5)		
		가게/시장	가게(2). 가락동시장(1). 경동시장(1). 남대문시장(1). 노량진시장(1). 대박마트(2). 동대문시장(1). 백화점(1). 분식집(1). 빵집(1). 쇼핑(3). 슈퍼마켓(2). 시장(5). 용산전자상가(1). 정육점(1). 중국집(1). 커피숍(2). 청화반점(1). 한식집(1).	19 (2.2)		
		일/취업	개최(1). 계속(1). 계획(1). 격려(1). 금지(1). 도착(2). 동작(4). 배달(1). 배차(1). 메모(1). 명령(1). 문의(1). 부탁(3). 사업(2). 생활(1). 시작(2). 안내(3). 연결(3). 연기(1). 연락(1). 예약(1). 예정(1). 운전(1). 이동(1). 일(2). 일과(1). 주문(1). 주의(1). 주차(1). 준비(2). 지원(1). 진찰(1). 진행(2). 참석(1). 참여(1). 추측(1). 출근(2). 출발(2). 출입(1). 취급(1). 투자(1). 포함(1). 표시(1). 회사(1). 회의(1).	45 (5.3)		
	기술적 환경	교통	교통(1). 기차(2). 막차(1). 버스(4). 배(1). 비행기(1). 4호선(1). 3호선(1). 오토바이(1). 5호선(1). 6호선(1). 2호선(1). 1호선(1). 자동차(1). 자전거(4). 지하철(3). 차(2). 첫차(1). 택시(1). 트럭(1).	20 (2.3)	39 (4.5)	
		통신	가족오락관(1). 공중전화(1). 국제우편(1). 국제전화(1). 뉴스9(1). 드라마(4). 러브인아시아(1). 사랑의 리퀘스트(1). 방송(2). 보통우편(1). 빠른우편(1). 소포(1). 아침마당(1). 전화번호(1). 편지(4). KBS뉴스(1). KBS뉴스광장(1). KBS스페셜(1). TV소설(1).	19 (2.2)		
자연 및 구조적 환경		계절/날씨	가을(2). 겨울(1). 그늘(1). 날씨(1). 눈(1). 봄(1). 비(2). 4계절(1). 여름(1). 온도(1). 장마(1). 태풍(1). 햇살(1).	13 (1.5)	178 (20.8)	
		시간/때	개교기념일(1). 과거(1). 그저께(2). 금요일(2). 날(3). 낮(2). 내년(1). 내일(4). 내후년(1). 년(1). 다음(2). 달(2). 때(7). 마지막(1). 매년(1). 매달(1). 매일(2). 매주(1). 며칠(1). 모레(2). 목요일(2). 미래(1). 밤(2). 분(2). 새벽(1). 수요일(2). 스승의 날(1). 시(7). 시간(4). 아침(3). 어제(4). 오늘(8). 오전(2). 오후(6). 올해(2). 요일(2). 월(4). 월요일(2). 음력(1). 이번(2). 일(4). 일시(1). 일요일(2). 일주일(1). 작년(1). 재량휴업일(1). 재작년(1). 저녁(4). 점심(2). 주(3). 주말(3). 차후(1). 참관일(1). 토요일(5). 평일(1). 하루(1). 학년도(1). 현충일(1). 화요일(2). 후(3).	60 (7.0)		
		식물	꽃(3). 낙엽(1). 단풍(1).	3 (0.3)		

<표 5> 계속

생활환경		생활문화 내용	소계	계	합계
자연 및 구조적 환경	나라/도시	경주(1). 광주(1). 나라(1). 대구(2). 대전(2). 대한민국(2). 러시아(2). 몽골(1). 미국(1). 베트남(3). 부산(3). 북경(1). 브라질(1). 서울(3). 우즈베키스탄(1). 인도(1). 인천(1). 일본(1). 제주(1), 제주도(1). 중국(1). 창원(1). 캐나다(1). 태국(2). 필리핀(1). 하노이(1). 한국(6).	27 (3.1)	178 (20.8)	
	지역	고향(4). 공원(1). 도착지(1). 목적지(1). 바다(1). 번지(1). 산(2). 신설동(3). 여의도공원(1). 운동장(1). 읍내(2). 장소(4). 지역(1). 출발지(1).	14 (1.6)		
	도로	길(1). 돈암사거리(1). 종로3가(1). 종로4가(1).	4 (0.5)		
	건축물	경복궁(4). 경찰서(3). 고등학교(1). 공항(1). 광화문(1). 광화문역(1). 교실(6). 극장(4). 내과(2). 노원역(1). 놀이동산(1). 대학교(1). 도서관(1). 동대문(2). 동대문역(1). 동물원(1). 명동역(1). 미아역(1). 미아보호소(1). 미용실(1). 민속촌(1). 박물관(1). 병원(4). 보건소(2). 산부인과(1). 서울역(1). 소방서(1). 소아과(1). 수영장(1). 시청역(1). 신설동역(2). 신촌역(1). 안과(1). 약국(1). 어린이집(1). 여의도역(1). 역(1). 연세대(1). 왕십리역(1). 외과(1). 우체국(2). 월드컵경기장(2). 유아원(1). 유치원(1). 은행(2). 의정부역(1). 이비인후과(1). 이태원역(1). 정류장(2). 종로3가역(1). 중학교(1). 찜질방(1). 초등학교(1). 치과(1). 피부과(1). 학교(3). 학원(1).	57 (6.6)		
합계				858(100.0)	

* ( )의 숫자는 교재 내 해당 단어가 제시된 과의 수를 나타냄.

이를 종합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 환경으로서의 가족/친척, 인접 환경 가운데 사회적 환경 내 친구/이웃과 일반타인, 물리적 환경 내 음식, 용품, 복식에 관한 문화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역 환경 가운데서는 사회문화적 환경 내 여가와 교육, 경제적 환경 내 일/취업, 가게/시장, 단위, 정도, 기술적 환경 내 교통과 통신, 자연 및 구조적 환경 내 시간/때, 건축물, 나라/도시에 관한 문화내용이 많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여성가족부(2005: 6)가 언급한 바와 같이 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과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이 교재에서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한국에 정착하게 된 여성 결혼이민자가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활환경 내 문화의 내용들이 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교재의 24개과에 걸쳐 여러 번 제시된 단어들을 간추려보면 보다 명백히 확인된다. 그 예로 가족/친척 가운데 여성 결혼이민자인 란(24개과), 남편(10개과), 어머님(4개과), 친구/이웃인 취친(9개과), 리사(6개과), 에블린(6개과), 왕리(6개과), 가오리(4개과), 엘레나(4개과), 일반타인인 사람(10개과), 선생님(4개과)이라는 단어들은 여러 과에서 제시되었다. 유사하게 음식 가운데 밥(10개과), 빵(5개과), 사과(5개과), 생선(4개과), 물(4개과), 우유(4개과), 주거 가운데 집(8개과)과 청소(4개과), 복식 가운데 구두(6개과), 옷(6개과), 바지(4개과), 용품 가운데 책(10개과), 연필(6개과), 가방(4개과), 기기 가운데 텔레비전(5개과), 전화(5개과), 냉장고(4개과), 라디오(4개과), 컴퓨터(4개과)라는 단어들도 여러 과에 포함되었다. 광역 환경에서는 교육 가운데 한국어(7개과)와 공부(4개과), 여가 가운데 소풍(5개과)과 영화(5개과), 가게/시장 가운데 시장(5개과), 교통 가운데 버스(4개과), 통신 가운데 드라마(4개과), 편지(4개과), 시간/때 가운데 오늘(8개과), 시(7개과), 때(7개과), 오후(6개과), 나라/도시 가운데 한국(6개과), 지역 가운데 고향(4개과), 건축물 가운데 교실(6개과)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과에 걸쳐 제시되었다. 이는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으로서(란), 한 가정의 아내와 며느리로서(남편, 어머님), 가사를 담당하는 가정관리자로서(밥, 빵, 집, 청소, 옷, 구두, 시장 등), 여가를 보내는 주부로서(텔레비전, 영화, 드라마), 자신과 같은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취친, 리사, 에블린, 왕리, 고향, 편지, 전화 등),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으로서(선생님, 책, 연필, 가방, 컴퓨터, 교실, 소풍, 버스 등)의 실제 모습을 반영한다.

한편 생활문화 내용 중 물리적 환경 내 주거, 위치, 기기, 사회문화적 환경 내 예절, 의례, 행사, 명절, 정치적 환경 내 제도와 행정기관, 경제적 환경 내 화폐, 자연 및 구조적 환경 내 계절/날씨, 식물, 지역, 도로에 관련된 단어들은 한국어교재에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사회문화적 환경 내 출산/육아, 정치적 환경 내 법에 관련된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다.

2) 자료제시의 유형

초급한국어교재에서 생활문화 내용을 제시하는 자료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표 6>과 같이 단어, 삽화, 사진으로 항목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생활문화 내용 관련 858개 단어 가운데 삽화로 제시된 경우는 505개, 사진으로 제시된 경우는 52개였다. 사진은 모두 음식에 관한 것이었으며, 삽화는 음식 75개, 용품 73개, 복식 54개, 가족/친척 41개, 건축물 28개, 여가 26개, 교통 18개, 나라/도시 18개, 단위 17개, 친구/이웃 16개, 일반타인 15개, 시간/때 14개, 위치 11개, 기기 11개, 주거 10개, 계절/날씨 10개, 일/취

<표 6> 초급한국어교재의 자료제시 유형

N(%)

생활환경			유 형		
			단 어	삽화(단어에 대한 비율)	사진(단어에 대한 비율)
가족 환경		가족/친척	50	41(82.0)	0
인접 환경	사회적 환경	친구/이웃	29	16(55.2)	0
		일반타인	27	15(55.6)	0
	물리적 환경	복 식	57	54(94.7)	0
		음 식	142	75(52.8)	52(36.6)
		주 거	13	10(76.9)	0
		위 치	15	11(73.3)	0
		용 품	83	73(88.0)	0
		기 기	13	11(84.6)	0
광역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예 절	10	6(60.0)	0
		의 례	10	7(70.0)	0
		교 육	26	3(11.5)	0
		행 사	9	1(11.1)	0
		명 절	6	5(83.3)	0
		여 가	30	26(86.7)	0
	정치적 환경	제 도	3	2(66.7)	0
		행정기관	6	5(83.3)	0
	경제적 환경	단 위	18	17(94.4)	0
		정 도	17	4(23.5)	0
		화 폐	13	8(61.5)	0
		가게/시장	19	6(31.6)	0
		일/취업	45	9(20.0)	0
	기술적 환경	교 통	20	18(90.0)	0
		통 신	19	5(26.3)	0
	자연 및 구조적 환경	계절/날씨	13	10(76.9)	0
		시간/때	60	14(23.3)	0
		식 물	3	3(100.0)	0
		나라/도시	27	18(66.7)	0
		지 역	14	3(21.4)	0
		도 로	4	1(25.0)	0
		건축물	57	28(49.1)	0
			858	505(58.9)	52(6.1)

업 9개, 화폐 8개, 의례 7개, 예절 6개, 가게/시장 6개, 명절 5개, 행정기관 5개, 통신 5개, 정도 4개, 교육 3개, 식물 3개, 지역 3개, 제도 2개, 행사 1개, 도로 1개의 순이었다.

전체 단어에 대한 삽화의 비율은 58.9%였다. 세부적으로 생활문화 내용을 제시하는 해당 단어에 대한 삽화의 비율은 식물 100.0%, 복식 94.7%, 단위 94.4%, 교통 90.0%, 용품 88.0%, 여가 86.7%, 기기 84.6%, 명절 83.3%, 행정기관 83.3%, 가족/친척 82.0%, 주거 76.9%, 계절/날씨 76.9%, 위치 73.3%, 의례 70.0%, 나라/도시 66.7%, 제도 66.7%, 화폐 61.5%, 예절 60.0%, 일반타인 55.6%, 친구/이웃 55.2%, 음식 52.8%, 건축물 49.1%, 가게/시장 31.6%, 통신 26.3%, 도로 25.0%, 정도23.5%, 시간/때 23.3%, 지역 21.4%, 일/취업 20.0%, 교육 11.5%, 행사 11.1%였다. 반면 사진의 비율은 전체 단어 중 6.1%를 나타냈다. 단어가 삽화와 사진으로 모두 제시된 것은 음식 관련내용 중 9개(계란, 국, 김밥, 김치, 김치찌개, 나물, 삼계탕, 생선, 커피)였다(부록 1, 2 참조).

2. 초급한국어교재 내 생활문화 내용구성의 개선 방향

제2언어로서 한국어교육 대상이 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에 적응하고 한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학습동기를 가진다. 이 같은 학습동기를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초급한국어교재에서 생활문화 내용구성상에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습자 중심의 요구 반영

생활환경별 생활문화의 내용과 자료제시의 유형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문화교육 요구도를 밝힌 선행연구들(백미옥, 2007; 이경연, 2007; 이언숙, 2008)의 결과와 대조해 내용구성에서 부응하는 점과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환경에서는 가족/친척(3과)에 관련된 호칭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요구와 일치하는 면이 많았다. 친정가족과 시댁가족을 도식화하고, 부를 때와 가리킬 때의 호칭을 구분해서 나타냈다. 이는 가족관계 중 친정과 시댁의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조손관계, 동서관계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의 자녀(아들, 딸)나 조카 등의 관계는 명시되지 않아 부부를 중심으로 세대 간 가족관계문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보완이 요구된다. 한편 24개과의 도입부분에 들어있는 대화문들을 살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화 대상은 가족/친척 5개과(남편 3개과, 시어머니 1개과, 아들인 민재 1개과), 친구/이웃 10개과(왕리 3개과, 리사 2개과, 엘레나 1개과, 가오리 1개과, 리사・왕리 1개과, 화・취친 1개과, 이웃집아주머니 1개과), 일반타인 10개과(아주머니 2개과, 아저씨 1개과, 선생님 1개과, 점원 1개과, 직원 1개과, 의사 1개과, 경찰 1개과, 남자 1개과, 여자 1개과)로 나타난다. 이는 초급한국어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친척 관련 단어들의 수에 비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에 활용가능한 대화문의 실질적 제시가 부족함을 말해준다. 대화문은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말하기와 듣기(구지은, 2006)에 중점을 둔 것이므로 초급단계에서는 사회적 환경 내 친구/이웃, 일반타인과의 관계 못지않게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의 의사소통문화에 초점을 둔 대화문을 균형 있게 안배하여 상황을 예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사회적 환경 내 친구/이웃(1과, 2과), 일반타인(22과, 24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교재에서는 삽화도 없이 단순히 이들의 호칭에 해당하는 단어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상과의 관계문화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해당 대상과 호칭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예시가 삽화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리적 환경에서는 음식과 주거에 대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요구가 비교적 높았던 점과 대조해볼 때 음식(9과, 18과, 23과)에 대한 내용은 많은 면에서 요구에 부응되고 있었다. 특히 다른 생활문화 내용에 비해 삽화와 사진으로 음식자료가 제시되었던 점은 여성이민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용이하다. 여기에 간단한 음식 만들기, 상차림과 같은 내용이 함께 제시된다면 일상의 음식을 준비하는 주부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음식 재료(4과)의 단어 중 육류(예: 소고기와 돼지고기), 조미료(예: 고추장과 된장, 소금과 설탕) 등은 삽화보다는 사진을 넣는 것이 식별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주거(10과)의 경우 공간, 위치, 용품, 기기에 관한 것이 주가 되고 있어 교육요구가 있는 전세, 월세, 관리비, 보증금, 단독주택 등의 내용 보충을 요한다. 한편 복식(22과)에서는 의복, 신발, 장신구의 종류와 각각의 착용에 관한 단어를 제시하면서 삽화를 넣어 이해를 도모하였다.

넷째, 사회문화적 환경 내에는 예절, 의례, 출산/육아, 교육, 행사, 명절, 여가 등의 생활문화내용이 포함된다. 이중 예절문화에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웃어른에 대한 예절, 어른 앞에서의 자세예절, 초대 및 방문예절, 인사예절, 식사예절 등에 여성 결혼이민자가 교육요구를 보였던 점과 비교하면 한국어교재에는 상황별(예: 문안, 세배, 축하, 감사, 사과, 실례 등)로 간략하게 인사말의 예절(1과, 17과) 내용이 충족되고 있을 뿐 다른 예절들의 제시는 부족하다. 초대, 방문, 식사, 자세, 전화, 인사행동 등의 예절문화 내용을 쉬운 설명과 함께 보충을 요한다. 의례의 경우에는 생일・생신, 결혼, 제사 등(7과, 17과)의 단어 혹은 단어와 삽화가 제시되어 있으나 돌, 환갑, 칠순, 차례, 제사의 의미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설명과 사진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며느리로서 알아야 할 장례에 관한 내용도 추가되어야 한다. 출산/육아의 내용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20~30대의 연령이 주를 이루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요구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영양 및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을 밝혔다(법제처, 2008). 이 같은 법의 시행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을 담고 있으므로 초급한국어교재상에도 출산/육아의 내용은 일부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8과),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24과) 필요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별히 초등학교생활에 관련된 교과명칭, 교내행사, 가정통신문, 학용품과 준비물 등의 예시가 한국의 교육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 여가(19과, 23과)는 일상의 취미활동 관련 단어와 삽화가 이해하기 쉽게 연결되어 있었다. 반면 명절(23과)은 음식과 놀이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각 명절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아 보완이 요구되며, 각 명절을 상징하는 문화의 내용은 삽화보다는 사진으로 변경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정치적 환경 내 문화내용은 한국어교재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부문이었다. 초급한국어교재에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 제도(13과), 행정기관(20과)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지가 결혼과 이혼, 체류자격에 대한 교육요구를 가진다고 한 이언숙(2008)의 견해에 의거하면 역시 보충을 요하는 측면이다. 물론 법, 제도와 같은 정치적 환경의 생활문화

내용은 초급단계의 학습자가 한국어를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교사 혹은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 언어 수준이 고급에 해당하는 학습자가 보조교사로 해당 국가별 여성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경제적 환경에 관련된 생활문화 내용은 단위(5과), 정도(5과), 화폐(13과, 20과), 가게/시장(4과, 11과, 18과, 21과), 일/취업(15과, 16과)에 관한 것이다. 이중에서 상황별 정도 표현의 예시(예: 거리, 나이, 수량 등)가 좀 더 요구된다. 화폐는 현금과 카드, 입금과 출금 이외에도 가정경제를 담당하는 주부로서 알아야 할 세금, 공과금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가게/시장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의 단어 중 고유명사들(예: 청화반점, 동대문시장 등)이 나타나므로 사진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일/취업은 제시된 많은 단어 수에 비해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설명과 삽화가 포함되지 않아 이해의 어려움이 크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일곱째, 기술적 환경 내 교통(13과, 14과)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교통수단 이용문화에 대한 교육요구에 전반적으로 부응되고 있었다. 통신(6과, 12과, 20과)에서는 방송, 통화, 우편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여성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TV방송프로그램, 국제전화, 국제우편에 관한 단어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생활에 유용한 인터넷 사용, 긴급전화번호, 우편물의 주소 작성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여덟째, 자연 및 구조적 환경에 관련된 생활문화 내용 중 계절/날씨(21과), 식물(21과)은 관련된 삽화를 넣어 이해를 도모하였으나 제시된 단어 수가 적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요구에는 상응하지 못하므로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다. 시간/때(7과, 19과)는 많은 단어 수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설명이 부족하여 초급단계에서는 분별이 어려우므로 일부 단어(예: 내후년, 차후 등)는 수정을 요한다. 나라/도시(2과, 13과, 21과), 지역(19과), 도로(14과) 중 나라/도시는 특히 다문화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부문이다. 현재는 지명과 함께 지도, 국기에 관련된 삽화만 제시되어 있으나 나라/도시를 대표하는 사진을 삽입하면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건축물(14과, 16과, 19과, 20과)과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문화에 대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요구는 높은 편이다. 특히 지역주민으로서 보건소, 약국, 도서관, 미용실, 극장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의 관련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교재 내용의 선정 및 구성은 공급자인 교육기관이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공급자 역시 한국인으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공급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생활문화의 내용구성을 위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요구 파악은 긴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초급한국어교재를 통해 한국어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주변의 여건과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서도 교재를 통해 한국어와 생활문화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발판이 될 것이다. 이에 앞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초급한국어교재의 개선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교재의 내용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검토 작업을 실시하면서 더불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요구도 함께 파악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참조하여 한국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의 다양성이나 난이도를 고려한 어휘들을 교재에 제시하고 학습자의 관점에서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과 삽화 및 사진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2) 교육내용의 순환적 제시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수업은 개인 사정으로 결석을 하면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급한국어교재의 내용을 순환형으로 배열할 필요가 있다. 순환형은 교육내용이 연속적으로 심도 있게 학습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 항목이 한번만 제시되고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재도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주제를 한번 학습한 후 다시 그 주제와 유사한 내용을 제시할 때는 언어 구조와 과제의 복잡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이미 학습한 내용을 심화, 종합하여 여성 결혼이민자가 자연스럽게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김일란, 2007). 본 분석의 결과, 초급한국어교재에는 생활문화의 내용과 관련된 858개의 단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중에는 24개과에 걸쳐 단지 한번만 나타나는 단어들도 상당수였다. 이는 자칫 단어의 일회적 제시에만 그칠 뿐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오지 못할 우려가 있다.

생활문화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이순애(2007)는 한국 생활의 적응단계를 고려하여 여성 결혼이민자가 순차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화를 다루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 개인의 경우 가정, 지역사회, 일반사회의 순환적 과정으로 한국에서의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그에 따른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의 내용구성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다양한 생활환경 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 환경, 인접 환경, 광역 환경 등의 생활환경에서 존재하는 가운데 이들 환경들과 상호 관계와 영향을 주고받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생활문화 내용을 학습한 후 그에 대한 이해를 반복하고 심화하도록 내용을 순환적으로 배열, 조직함으로써 그를 실제 생활환경 내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으로 누적할 수 있도록 구성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적 요소 도입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공부하는 기존의 외국인 학습자용 교재처럼 다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한국의 생활문화만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일반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를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와서 국적 지위에서 오는 위축감과 함께 한국 사람과는 다른 외모, 언어, 사고방식으로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학습자가 제2언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와 관련이 있다(김일란, 2007). 이는 개인 학습자가 목표어 집단의 한 구성원이 되고 그들과 접촉하는데 성공하는 정도에 관련된 문제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거리감을 좁혀 제2언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일 방안은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이다. 문화적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가치관과 관습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는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의 문화와 모국의 문화를 함께 제시하여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종철(2005: 399)도 한국의 문화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비교문화의 관점을 도입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국적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모국의 생활문화를 교재에 일부 반영하여 이들에게 자존감을 갖게 한다면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보다 가까워지게 되고 한국어 학습에도 커다란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이순애(2007) 역시 학습자가 한국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충격은 모국문화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성 결혼이민자들과 같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에게 국가별 생활문화에 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다문화적 가치관을 심을 수 있도록 한다면 한국의 생활문화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수용(accommodation)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문화, 관습, 언어, 규범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복합적 정체성을 내면화해나가는 과정이다(서혁, 2007).

2008년 9월 22일부터 우리 사회 내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제처, 2008).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교재의 내용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08)도 2007년 개정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를 배포하면서 실과 및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상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더불어 다문화 이해 교육의 내용을 교과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초급한국어교재 내에 생활문화 내용을 구성하는 일면으로 다문화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요구들에 부응하는 일환이 될 것이다.

4) 생활문화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성 구축

보건복지가족부(2008b)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방송교육 등을 통한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및 상담, 아동양육지원, 취업지원 및 멘토링 지원 등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목적은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에 필요한 정확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영옥, 2007)이므로 생활문화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한국어교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생활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한국어교재와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면서 내용의 다양성을 모색해야 기존의 방식과 같이 단편적인 면에만 치우치는 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직까지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의 부족으로 한국어교사의 역량과 교육기관의 주관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는 한국어교육전공자와 생활문화전공자가 체계적인 co-work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며, 생활문화의 내용에 내실을 기하는 학습자 활동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토대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 활동중심의 교육(조항록, 2008a: 31-32)은 학습자의 필요나 동기 등의 요구에 맞추어 학습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일례로 한국의 복식문화(예: 한복)에 대한 교육내용은 한국어수업시간에 교재를 통해 의복이나 장신구 관련 어휘 그리고 착용방법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한국어 문법을 학습하고 생활문화교육프로그램에서는 복식에 대한 실물자료 제공과 더불어 여성 결혼이민자가 모국의 복식과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며 착용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의복예절도 함께 전달함으로써 복식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초급한국어교재의 24개과별로 구성하여 정기적인 생활문화교육으로 시행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능력의 신장과 생활문화 지식에 대한 전달을 동시에 추구해나갈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교재에서 생활문화를 함께 배우거나 교재에 문화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다양한 방식으로 혹은 설명으로 제시해주거나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이 실시되기를 원하는 점은 한국어교육전공자와 생활문화전공자의 co-work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바다. 여기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문화 내용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은 한국어교재 내 설명 위주의 텍스트, 삽화, 사진 이외에 생활문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청각 자료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한국어수준에 맞는 시청각매체 개발의 과제 역시 대두된다고 하겠다. 한상미(2007: 301)는 초급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상물을 활용해 문화교육을 하는 경우 교실 활동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통찰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들의 언어 숙달도에 맞게 해당 주제가 부각될 수 있도록 영상물에 대한 적절한 편집이나 내용 선정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 같은 과제들을 가정학계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생활과학대학에서 생활문화 관련 전공과목 예를 들어 가족과 문화(가정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보건복지가족부, 2008a), 다문화가족의 이해, 생활문화실습 등을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하여 건강가정사로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와 시청각 자료 개발 그리고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V. 결론 및 제언

한국에 거주하게 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생활문화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 학습자, 교재, 교육과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중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교사와 학습자를 연결해주는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어교재이다.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초급한국어교재의 생활문화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교재를 통한 생활문화교육의 목표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어와 생활문화를 익혀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생활환경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화요소를 이해하고 그를 영위해나가는 상황별 대처능력을 기르며, 한국과 자신의 모국을 포함하여 다문화에 대한 수용의 시각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들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 초급한국어교재를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내용구성상에 보다 나은 개선안들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개선안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통해 첫째,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학습자의 요구 반영, 이를 기초로 한 내용의 다양성(예: 주거, 출산/육아, 법, 제도, 행정기관, 화폐, 통신, 계절/날씨)과 난이도를 고려한 단어 선별(예: 일/취업, 정도, 시간/때) 및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예: 예절, 의례, 명절), 삽화(예: 친구/이웃, 일반타인, 일/취업), 사진(예: 음식 재료, 의례, 명절, 가게/시장, 나라/도시)의 제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다양한 생활환경 내에 존재하는 가운데 환경들과 상호 관계와 영향을 주고받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습득하여 활용 가능한 생활문화 내용의 순환적 배열과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모국과 한국의 복합적 정체성의 내면화를 돕는 국가별 생활문화에 관한 정보 제공과 다문화적 요소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어교재 개발은 한국어교육전공자와 생활문화전공자의 co-work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연계된 학습자 중심의 생활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생활문화에 대해 사전 학습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많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교재를 통해 생활문화의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계기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 내 생활문화의 내용은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를 감안해야 하며, 교실 밖의 상황에 맞는 실제 생활환경의 모습을 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상황과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의 내용을 구성하여 여성 결혼이민자가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교재를 통해 한국어와 생활문화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초급 한국어교재 구성 시 이들 여성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문화교육에 대한 요구를 한국어교육학계의 선행논문들을 통해 살펴보았으나 다문화가족의 생활과 복지에 관한 연구에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학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어교재의 보완 및 수정작업에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중급한국어교재 역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에 포함된 생활문화의 내용 분석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초급과 중급의 교재 간 내용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여 향후 교재의 완성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높여나가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http://www.mest.go.kr.

구지은(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립국어원(2008).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김양희・박정윤・김효민・백선아(2008). 결혼이민자가족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121-140.

김일란(2007).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숙(1992). **한국어 교육 과정과 교과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종철(2005). 문화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론 2**. 서울: 한국문화사.

박영순(1989). 제2언어로서의 문화교육. **이중언어학, 5(1)**, 43-59.

백미옥(2007).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문화와 한국어의**

통합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법제처(2008).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가족부(2008a).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 개정안.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2008b).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 대책.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2008c).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안내. http://www.mw.go.kr.
서혁(2007).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인간연구, 12**, 57-92.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신상록(2008). 현대한국과 다문화사회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2**. 서울: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교육원.
여성가족부(2005).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초급)**.
유가효・홍성희・김성숙(2008).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적응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95-120.
이경연(2007). **문화 교육 겸용 초급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길표・주영애(1999).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서울: 신광출판사.
이민경(2007).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일일학습 교재개발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영(2001). **한국어 교재의 문화요소 분석 및 한국어 문화 통합 교수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애(2007).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구성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언숙(2008).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 요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옥(2007). **이주 여성을 위한 생활한국어 교재개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항록(2008a). 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2**. 서울: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교육원.
조항록(2008b). 한국어문화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2**. 서울: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교육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a).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가이드북. http://www.familynet.or.kr.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b). 결혼이민자가족방문교육사업 운영매뉴얼. http://www.familynet.or.kr.
채옥희・홍달아기(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건강가정을 위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효과. **한국가정자원경영학회지, 10(3)**, 63-78.
통계청(2008). 2007 인구동향조사. http://www.kosis.kr.
한상미(2007). 한국 문화 교육론. **한국어교수법의 실제**.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Ruth E. Deacon & Francille M. Firebaugh(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2nd ed.)*. Massachusetts: Allyn and Bacon, Inc.

□ 접 수 일 : 2008년 11월 14일
□ 심 사 일 : 2008년 12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2월 09일

<부록 1> 삽화가 제시된 단어

구 분	단 어	계
가족/친척	가족. 나. 남동생. 남편. 누나. 도련님. 동서. 란. 매부. 민재. 민지. 서방님. 손아래. 손위. 시누이. 시댁. 시동생. 시아버지. 시아주버니. 시어머니.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아가씨. 아기. 아버님. 아버지. 아이. 아주버님. 어머니. 어머님. 언니. 여동생. 오빠. 저. 친정. 할머니. 할머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형. 형님	41
친구/이웃	가오리. 라미. 리사. 민정. 선영. 에블린. 엘레나. 왕리. 윤실. 쟈미. 지얏. 취친. 친구. 친친. 하나코. 화	16
일반타인	간호사. 경찰. 부인. 분. 사람. 선생님. 아저씨. 아주머니. 여자. 원장. 의사. 이동수. 점원. 직원. 한준원	15
복 식	교복. 구두. 귀걸이. 내복. 넥타이. 다림질. 드라이. 러닝셔츠. 모자. 목걸이. 목도리. 바지. 반바지. 반지. 벨트. 브래지어. 블라우스. 빨래. 상의. 샌들. 세탁. 속옷. 손세탁. 손수건. 수영복. 스웨터. 스타킹. 슬리퍼. 시계. 신발. 안경. 액세서리. 양말. 옷. 와이셔츠. 외투. 운동화. 작업복. 잠바. 잠옷. 장갑. 장화. 점퍼. 정장. 조끼. 청바지. 치마. 코트. 티셔츠. 팬티. 표백. 하의. 한복. 허리띠	54
음 식	간장. 갈치. 감자. 게. 계란. 고구마. 고등어. 고추장. 고춧가루. 과일. 과자. 국. 귤. 김밥. 김치. 김치찌개. 깨소금. 나물. 달걀. 닭고기. 당근. 돼지고기. 된장. 두부. 딸기. 떡국. 라면. 마늘. 무. 물. 밀가루. 바나나. 반찬. 밥. 배. 배추. 부럼. 분유. 사과. 삼계탕. 새우. 샌드위치. 생선. 설탕. 소고기. 소금. 소주. 송편. 수박. 술. 식용유. 식초. 쌀. 아이스크림. 양념. 양파. 오곡밥. 오이. 오징어. 요리. 우유. 음식. 조개. 주스. 찌개. 차. 참기름. 커피. 콩나물. 파. 포도. 한약재. 호박. 화전. 후추	75
주 거	거실. 건넌방. 대문. 방. 부엌. 안방. 집. 청소. 현관. 화장실	10
위 치	뒤. 밖. 사이. 아래. 안. 앞. 옆. 오른쪽. 왼쪽. 위. 위치	11
용 품	가방. 가위. 것. 고무장갑. 공. 공책. 국그릇. 국자. 꽃병. 냄비. 달력. 담배. 도마. 뒤집개. 린스. 메뉴. 물감. 밥그릇. 밥상. 밸브. 베개. 변기. 붓. 비누. 사진. 상. 색연필. 생리대. 샴푸. 서랍. 세제. 소설책. 소파. 소품. 숟가락. 스케치북. 신문. 실내화. 안내표. 액자. 연필. 영수증. 옷장. 우산. 의자. 이불. 일과표. 자. 접시. 젓가락. 종이. 주걱. 주전자. 준비물. 지우개. 책. 책가방. 책상. 책장. 치약. 침대. 칫솔. 칼. 컵. 크레파스. 편성표. 풀. 프라이팬. 필통. 학용품. 행주. 화장대. 휴지	73
기 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라디오. 리모컨. 세탁기. 전기밥솥. 전화. 전화기. 청소기. 텔레비전. 휴대폰	11
예 절	감사. 미안. 세배. 안녕. 인사말. 축하.	6
의 례	결혼. 결혼식. 돌잔치. 생신. 생일. 성묘. 차례	7
교 육	가정통신문. 공부. 한국어	3
행 사	집들이	1
명 절	단오. 대보름. 명절. 설. 추석	5
여 가	강강수월래. 게임. 그네뛰기. 그림. 글. 널뛰기. 노래. 놀이. 놀이기구. 달맞이. 등산. 뜨개질. 배드민턴. 수영. 십자수. 여행. 연날리기. 영화. 윷놀이. 음악. 이야기. 잠. 쥐불놀이. 춤. 취미. 컴퓨터게임	26
제 도	비자. 여권	2
행정기관	군청. 동사무소. 면사무소. 시청. 출입국관리사무소	5
단 위	개. 개월. 권. 근. 단위. 대. 마리. 명. 벌. 병. 살. 송이. 원. 잔. 장. 켤레. 통	17
정 도	색. 수량. 연세. 회	4
화 폐	금액. 기차표. 단가. 승차권. 저금. 카드. 표. 현금	8
가게/시장	가게. 경동시장. 노량진시장. 쇼핑. 슈퍼마켓. 시장	6
일/취업	금지. 배달. 안내. 일과. 주문. 주의. 주차. 출입. 취급	9
교 통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교통. 기차. 배. 버스. 비행기. 오토바이. 자동차. 자전거. 지하철. 차. 택시. 트럭	18
통 신	공중전화. 국제전화. 드라마. 방송. 편지	5
계절/날씨	4계절. 가을. 겨울. 그늘. 날씨. 눈. 봄. 비. 여름. 장마	10
시간/때	금요일. 목요일. 분. 새벽. 수요일. 시. 시간. 월. 월요일. 일. 일요일. 토요일. 하루. 화요일	14
식 물	꽃. 낙엽. 단풍	3
나라/도시	대한민국. 러시아. 몽골. 미국. 베트남. 부산. 북경. 브라질. 서울.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천.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필리핀. 한국	18
지 역	공원. 바다. 산	3
도 로	길	1
건축물	경복궁. 경찰서. 공항. 교실. 극장. 내과. 놀이동산. 도서관. 동물원. 민속촌. 박물관. 병원. 보건소. 산부인과. 소방서. 소아과. 수영장. 안과. 역. 외과. 우체국. 은행. 이비인후과. 정류장. 찜질방. 치과. 피부과. 학교	28
합 계		505

<부록 2> 사진이 제시된 단어*

구 분	단 어	계
음 식	갈비. 갈비탕. 계란. 계란찜. 구이. 국. 군만두. 김. 김밥. 김치. 김치찌개. 나물. 냉면. 녹차. 돈가스. 된장국. 된장찌개. 떡. 떡볶이. 멸치. 미역국. 볶음. 부침개. 북어국. 불고기. 사이다. 삼겹살. 삼계탕. 생선. 설렁탕. 수정과. 순대. 순두부찌개. 식혜. 어묵. 자장면. 전. 조림. 족발. 짬뽕. 청국장찌개. 치킨. 커피. 콜라. 콩나물국. 탕수육. 통닭. 튀김. 프라이. 피자. 한과. 햄버거	52

*밑줄 친 단어는 삽화와 사진 모두 제시됨.